정세균 " '공석' 종로 후임 하늘만 알 것"

前 지역구에 이낙연 총리 배턴터치 질문에 답변

"경제 · 통합 총리 되고파…어려움 극복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총리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전 지역구 종로에 대해 누가 출마할 것 같은지를 묻자 "지금은 하늘만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 이낙연 총리의 배턴터치 얘기가 나오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있냐' 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 묻자 "경제 총리, 통합 총리가 되고 싶다"며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국회 상황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인사청문회 이후 두번째 인사청문회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재수하면 첨보다 잘해야겠죠"라고 반문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낙관하냐는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냐"며 "(청문회는) 정치인이 보는 시험인데 시험은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야 3+1 "대승적 차원 석패율제 포기 합의"

야 3+1(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들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 정의당 심상정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3+1 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협상이 파국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비상상황이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청년들의 낙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석패율제 최소화 안을 지난 18일날 합의해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제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정치권이 선거제 협상 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선거제 협상과 개혁법안들의 조속 타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文대통령, 文의장에게 뒤처리 맡기고 출국…꼼수 그만"

의원총회서 "국민, 제대로 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 중 · 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회의장에게 뒤처리를 맡겨 놓고 갈 때가 많았는데 오늘도 똑같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그런 꼼수는 그만 부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은 정정당당하게 야당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협의하고, 받을 건 받고, 고칠 건 고치는 당당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내 든 1.3m짜리 투표용지를 다시 들어 보이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많다"며 "백여 개 정당이 만들어지면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는 올바른 선거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정당이 100여개가 된다면 국민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대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선거를 희화화하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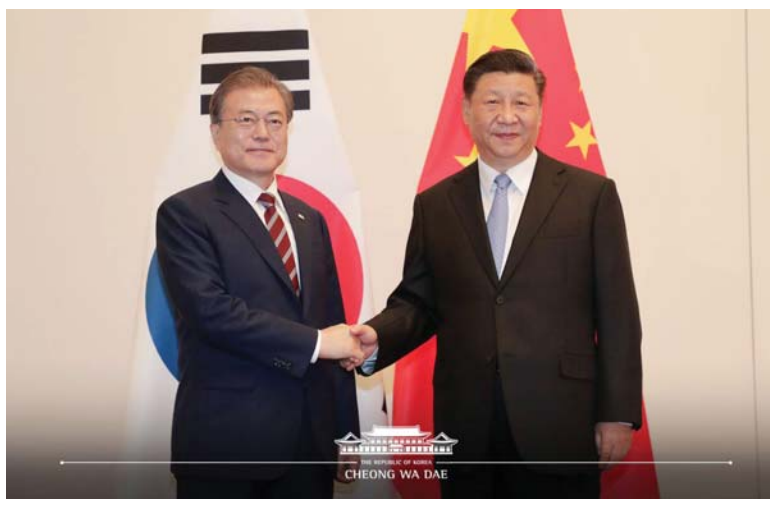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1+4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막아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조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문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 공수처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데 뒤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면서 겉으로는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잘못된 선거법, 돼서 안 되는 공수처법을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드시 막아내 국민과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文 "최근 상황 北에도 이롭지 않아" 시진핑 "지역 평화 공감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자,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에 이어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올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다"며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000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꿈(中國夢)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로 멀어진 한중 관계 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시 주석의 내년 조기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양자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님과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은 대통령님이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중한 관계가 발전하고 중한일 3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